www.hyokwang.or.kr

Vol 32

2020 효광원

한마루

한마루는 "남보다 훨씬 뛰어난, 걸출하다" 는 순 우리말입니다.

꿈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곳! 여기는 효광원입니다!

효광원

CONTENTS
목차

HYOKANG
Protection and Treatment Facilites

03 **교사 글_** 김진수 교사

05 **아동들의 글_** 권O민, 김O환, 우O재

08 **퇴소자의 글_** 이O기

09 **2020기획사업**

– 2020 (나눔과꿈) 청소년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더블하트 또바기)
– 2020 청소년과 원가족의 행복한 추억만들기 여행프로젝트(위드캠프)
– 2020 밥상머리 작은기적 요리교실
– 2020 국토횡단 "독도에서 백령도까지 가온길을 찾아서"
– 2020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2020 특수차량 25인승 버스 지원사업
– 2020 정신·심리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사업

12 **효광원 주요 프로그램**

13 **효광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14 **효우리 이모저모**

16 **효광원 활동 모습**

21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23 **후원 신청 안내**

한마루 Vol 32

발행처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전화 042.271.7053 **팩스** 042.271.5775 **지도신부** 김현 마태오 **발행인** 김정엽 **편집** 남광규
E-mail hkw7053@hanmail.net **홈페이지** www.hyokwang.or.kr **디자인** 창문(042.254.8977)

항상 그 자리에

글 | 김진수 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활지도원 김진수입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 된것 같은데 어느덧 해가 바뀌어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을 익히고 정을 쌓다보면 어느덧 퇴소하고, 또 새롭게 입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언제나 출근길에 저를 반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늘 그러듯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자동차를 주차하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제관 옆, 아름다운 화단 속에 있는 성모상입니다. 효광원은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운영하는 6호 시설입니다. 그래서 효광원 곳곳에는 천주교 관련 십자가나 성모상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모상은 늘 저를 반겨줍니다. 옅은 미소의 하얀색에 아름다운 성모상에서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따스함을 주는 성모상 앞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짧은 기도를 바치곤 합니다. '오늘 효광원이 평화롭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주시고 위로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제가 변화시킬 수 없으니 인내하게 해주세요' 매일 이러한 기도를 짤막하게 바치곤 합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효광원 출입구로 가는 길, 또다른 이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그들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출근하는 저에게 창문으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진수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고 가당치 않게도 사회복지사인 저에게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불러주니, 매일 들으면서도 쑥스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직장생활 하면서 누가 선생님 소리 듣겠어! '하면서 어깨가 으쓱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의 외침속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침엔 반갑게 맞아주는 아이들을 보면 기쁘지만 오늘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설렘과 긴장이 공존합니다. 처음 효광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여러 일을 배우고, 당직을 하면서 정신없이 보냈지만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특별한 곳에서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출근길이 매우 설레였기 때문입니다.

효광원에 근무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만, 입사 초반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벌써 다 아는 것 마냥 행동하는 제 자신을 보게됩니다. 아이들에게 익숙해져버린 저는 어느 순간 짜증도 내고, 화도내며, 아이들의 첫인상을 보고 지레짐작 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제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렇게 익숙해지는 저의 모습이 무섭고 소름까지 끼칩니다.

매 순간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로움을 추구하고, 에너지와 열정적으로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억지로 내기보다는 매일 부딪치고 깨 볶는 아이들과 어떻게 더 행복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매일 보는 아이들에게 익숙해진 저이지만, 아이들은 매 순간 저에게 한번이라도 상담을 더 받기위해, 저에게 하나라도 더 이야기하려고 목빠지게 기다리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보면 한명, 한명 너무나 순수하고 착합니다. 이글을 보는 부모님들께 좋은 이야기하려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을 덜 받을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작은 일들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막의 은수자 까를로 까레또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착하고 순수합니다. 때로는 너무 순수해서 순박한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여기에 왔지?

그래서 내가 아이를 어떻게 좀 변화시켜서, 멋진 교사로서 인정도 받고, 아이들에게 존경도 받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게 뚝딱 하고 아이들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14년 많게는 20년을 살아온 아이들을 저의 힘과 열정으로, 저의 욕심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 순간 체험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사랑으로, 부드럽게 착한 선생님으로 지도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혼도 내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정이 쌓이긴 하지만 이러한 정으로 아이들이 쉽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정 때문에 제 앞에선 잘하고 뒤에선 사고치는 모습을 보면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어느순간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뭘 그렇게 인정받겠다고 아이들을 변화시키나? 내가 뭘 얼마나 대단한 놈이라고, 그런데 제가 대단한 놈은 아니지만 제가 하고있는 이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더 느낍니다.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저의 작은 칭찬, 말 한마디가 이 아이들에겐 따뜻한 지지와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서서히 변화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좀 더 큰 변화로 이어지는 놀라움을 종종 보게됩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열정과 힘이 아닌 그저 옆에서 아이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것들을 주고 아이들을 위해 에너지 쏟는 것은 제 욕심이었고 진정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옆에 그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의 힘으로만 한다면요,

저는 하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노력과 함께 하는 동료 교사들의 열정과 땀들이 모여 1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경험하게합니다. 이러한 작은 체험들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작게 느껴 지지만 효광원 전체를 보면 큰 변화가 지금 이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언제나 욕심내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달라는 기도, 아이들을 향한 인내와 자비로운 마음을 달라는 저의 기도를 들은 하늘의 계신 그분이, 이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의 앞날을 새로움으로 축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내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매 순간 확인합니다. 아이들의 기발한 생각과 행동은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부모도 아닌데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는 다만 그들 옆에서 묵묵하게 동반자로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나 출퇴근할 때 매일 그렇듯 언제나 옆에 있는 성모상처럼, 매일 아침에 반겨주는 아이들처럼 저도 이 아이들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며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그것만으로도 효광원 교사로서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은 제 가족들보다 더 많이 보는 이들이 효광원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정말 잘 알고 정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재미나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들의 앞날이 항상 축복이 넘치길 기도하며, 지금 이 순간도 아이들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지혜는 진리 속에만 존재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내 나이가 어때서~ ♪
변화하기 딱 좋은 나인데~ ♬

글 | 권0민

안녕하세요. 저는 효광원에서 5개월째 지내고 있는 만 19세 권0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보는 것은 오랜만이네요. 저는 사회 나이로는 20살입니다. 그런데 효광원으로 와보니까 모두 중 ·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갑인 친구도 몇 없고, 이곳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다 보니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2주일간의 신입 생활 동안 적응하고, 다른 친구들의 심한 텃세와 경계도 견디어야 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본반에서 친구들과 친해지고 가끔은 투닥거리는 일이 있었지만, 다행히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1년 이상을 방황하였고 사회에서는 제 말을 들어주는 어른들이 거의 없었기에, 어른들은 '내 꿈을 갉아먹는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저와 친구들의 환경이 점점 비행에 빠지기 쉬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홀로 고향을 떠났지만, 과거의 비행에 대한 처분으로 효광원에 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막상 이곳에 왔을 때는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에서 마음을 잡고 종교 활동도 해보고 계획도 세우고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이곳으로 와버리니 너무 걱정스럽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와는 달리 이곳의 선생님들과 신부님 그리고 수녀님들은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고,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담임 선생님과 수녀님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중간마다 위기의 상황이 있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공부를 해보자고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고졸 검정시도 합격하였고, 사회에서는 막연히 생각했던 장래 희망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나가면
부사관을 꼭 지원하고, 소방관에 관한
공부를 병행하며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효광원은 저에게 처벌받으러 온 곳이 아닌 기회가 주어진 곳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을 항상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힘든 날 비행하고 고생했던 사회와 단절된 효광원에서 힘들어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꼭 성공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모래성을 단단한 벽돌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은, 신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선생님과 신부님, 수녀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곳 효광원에 오는 아이들에게도 좌절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성 바오로 사도

밥블레스미
[BOB BLESSE ME]

글 | 김O환

요리교실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을 하며 "요리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리란 '따뜻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려고 노력하십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밥을 챙겨주시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어머니이기에 당연한 듯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일이 다가오면 미역국을 먹습니다.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것 역시 당연하듯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받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받아먹는 것을 당연함,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겼었죠.

그러다 한번은 요리교실을 하며 미역국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받아서만 먹어본 미역국이 만들기 어렵다기보다는 쉽게 느껴졌고, 소박하지만 푸짐한 음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음식을 알려고도 혹은 누군가에게 대접해보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이 살짝 쑥스러워졌습니다. 게다가 부모님들께 이런 쉬운 음식 하나 챙겨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해준다는 것, 그 요리를 통해 나오는 음식이 단순히 식(食)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고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리를 통해서 말뿐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저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늘 저에게 작은 사랑과 따듯한 행복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고 있었던 우리가 앞으로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다른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준 이 수업이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죄지은 저희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은 순간들을 상기시켜 주셔서, 그리고 작은 밥상을 통해서도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기도를 얻으려고 한다면 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인내하십시오. -성 마가리오

난 할수 있어!!

글 | 우0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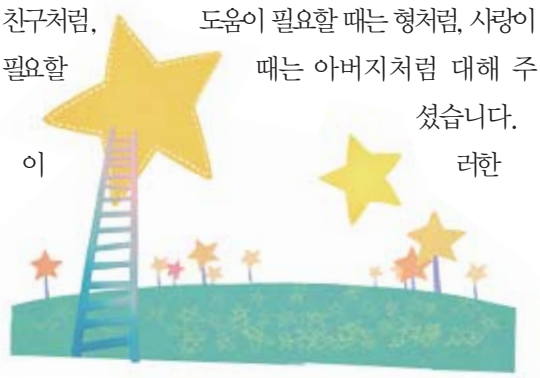
안녕 효우리 학습반 세우미 우0재입니다.

저는 대구 가정법원에서 '통고'라는 이유로 효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생활에 그다지 좋지 못한 행동을 자주 했기에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받고도 순순히 받아들이고 바뀌어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효광원이라는 곳은 사회와는 단절되어 있었고, 학교 기숙사와 같이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어울리며 생활해야 했기에, 다툼이 잦고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2주라는 적응 기간을 신입으로 보낸 후, 실질적인 효우리로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응기가 끝남과 동시에 긴장 또한 풀렸습니다. 여러 효우리를 위협하고 불의를 일으켰었죠. 그로 인해 징계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4달이 흐르고 생각을 고쳐먹은 저는 다른 신입동기들처럼 성장단계라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르미와 도우미라는 성장단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진 않더라도 평범한 생활을 하다보니 퇴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신 이관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심리상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검정고시라는 목표 또한 주어졌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안정적인 생활에는 목표라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효광원 선생님들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언제나 효우리들 곁에서, 힘들 때는 친구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형처럼, 사랑이 필요할 때는 아버지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진심 담은 사랑과 관심, 배려를 보고 배웠습니다. 또한 효우리들의 관계개선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사회생활이라는 머지않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아마 저는 지금 사회에 있었다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방황했을텐데 이곳에 있는 덕분에 많은걸 배웁니다. 나가면 이곳에서 배우고 느낀걸 타인에게 나누고 배풀며 살아가겠습니다.

큰사랑과 진실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불굴의 효우리!!

글 | 이O기

안녕 효우리!! 학습반 이끄미 이O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퇴소 인사를 하게 되는 날이 빨리 올 줄은 몰랐네요. 효광원에 오기 전 다른 곳에 있다가 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다시 재판을 받고 이곳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주간의 신입 기간을 마치고 본방에 갔는데, 어떻게 적응하고 생활해야 할지 혼자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적응도 하고, 부정적이었던 생각들은 긍정적으로 변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성장 단계도 어느덧 바르미 · 도우미였고, 더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 세우미 · 이끄미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끄미 상승 때 일주일 보류 되었는데, 순간 포기하고 막살아갈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마음을 잡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책임감 있게 생활했습니다. 판사님께서 저를 왜 소년원이 아닌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도 되찾고, 모든 일에 책을 갖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난날의 저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고, 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인데, 거짓말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깊이 듣고, 선생님들께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만을 말하며 신뢰도 쌓아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를 더욱 믿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생활한 저에게 고맙고, 내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의지뿐만 아닌, 담임 선생님이신 최정호 선생님의 도움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저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고 책임감을 얻어가는 것 같아, 6개월이란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실패만 해왔고 그 때문에 좌절하며 살아왔지만, 효광원에서의 6개월간 저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결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6개월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방황하지 않도록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장래 희망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하여 대학 입학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된 기도를 얻으려고 한다면 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인내하십시오. -성 마가리오

2020 기획사업 I

(나눔과꿈) 청소년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더블하트 또바기)

지원기관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목적	청소년들에게 도배기술 습득을 교육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습득된 도배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소외계층 어르신 가정에 찾아가 도배와 장판, 청소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개념의 프로젝트.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2020 기획사업 II

청소년과 원가족의 행복한 추억만들기 여행프로젝트(위드캠프)

지원기관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사업목적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인 위드캠프 참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들의 캠프참가 의지를 고취시켜 가족기능 회복과 강화를 목적으로 위드캠프 참가 보호자에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대상자(보호청소년과 보호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보호청소년과 보호자)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을 덜 받을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작은 일들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막의 은수자 까를로 까레또

2020 기획사업 III

밥상머리 작은기적 요리교실

지원기관	한끼 100원나눔운동본부
사업목적	비행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요리 방법을 습득하여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함으로 건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반대로 생계를 책임지는 바쁜 부모를 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2020 기획사업 IV

국토횡단
“독도에서 백령도까지 가온길을 찾아서”

지원기관	유한킴벌리 대전공장, 대전사회복지협의회
사업목적	보호청소년들의 국토순례를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더불어 호연지기를 배우고, 심신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도록 함. 또한 국토순례 중 역사적인 장소를 거치면서 선조들의 지혜뿐 아니라 애국심을 향상시켜 반사회성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사업기간	2020년 5월, 10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지혜는 진리 속에만 존재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2020 기획사업 V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원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목적	예술강사를 지원하여 특정예술 장르의 기능습득에서 나아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개인의 일상과 삶을 각 장르별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풀어내는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잠재적 소질 발굴 및 계발, 문화예술교육의 욕구충족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사업기간	2020년 3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2020 기획사업 VI

특수차량 25인승 버스 지원사업

지원기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목적	2016년부터 3년차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재원아동들에게 사업특성을 반영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가깝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 효광원 보호치료사업 수행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또는 보호소년의 보호자

2020 기획사업 VII

정신·심리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기관	대전광역시, 대전아동복지협회
사업목적	심리·정서·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통합사례관리 개입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더불어 아동의 가족, 시설종사자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의 전인적 성장 도모함.
사업기간	2020년 4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당신을 갈망할 때 찾고 찾을 때까지 갈망하며 사랑할 때 찾아내고 찾아낼 때 사랑하게 하소서. -성 안셀모

효광원 주요 프로그램

01 동계·하계방학 레포츠데이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서는 동계·하계방학 중 레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와 휴식을 제공함으로서 스트레스 해소와 건전한 레저 스포츠 및 취미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학프로그램.

❖ 매년 7월 ~ 8월(하계방학), 12월 ~ 1월(동계방학)

02 海바라기 캠프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양과 해양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관련 지식을 배양하고 관련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동시에 현장체험 활동으로 재원 아동들의 심신단련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박 3일간 진행하는 해양 힐링캠프.

❖ 매년 1월, 2월 중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03 국토종단 및 횡단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서 보호소년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더불어 호연지기를 배우고 심신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의 자세 등을 배워 보호치료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연간 2회 실시 2박 3일(5월, 10월)

04 위드 캠프(WITH CAMP)

법원으로부터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보호자가 효광원에서 진행하는 1박 2일 보호자 캠프를 통해 교육이수와 함께 캠프를 통한 가족관계 회복을 기하는 프로그램.

❖ 매월 1회 1박 2일간 실시

05 대전학원강사연합회 학습지도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 기초학습 지도하는 프로그램.

❖ 연중 과목별 주 1회

06 겨자씨 검정고시 학습

충남대학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보호소년들의 검정고시 대비 학습지도 프로그램.

❖ 연중 주 1회

07 어머니와 요리교실

균형 있고 영양가 높은 수제간식을 함께 만들며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

❖ 매월 주 2회

거룩함은 행복하게 사는데 있습니다. -성 요한 보스코

효광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01 도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존중감, 강점과 난점 및 우울, 불안, 공격성을 건강하게 개선하고 회복하게 함.
또한 퇴소 이후 가정, 학교, 사회의 적응과 재범 예방 및 성인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 연간 2회 실시(6월, 10월)

02 미디어테라피

미디어 테라피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찾아 과거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심리정서 수련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 연간 2회 실시(3월, 9월)

03 성교육 치료집단

성경험 또는 성관련 위험군을 대상으로 집단활동을 실시하여 왜곡된 성의식과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지지하는 치료프로그램.

❖ 연간 2회 실시(3월, 9월)

04 금연치료

금연지원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금연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흡연율 감소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05 도박중독 치료 집단

도박 폐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밖 고 위험 청소년에게 도박행동 인지, 정서·욕구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유발하는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하도록 안내하여 퇴소 후 맞이하게 될 고 위험 도박 상황에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본역량 강화 프로그램.

❖ 연간 4회 실시

06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두드림(Do Dream)

꿈:드림, '꿈을 드림'(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

❖ 연 3회 실시(5월, 8월, 11월)

0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 'CAP+'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진로고민을 해결하고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취업지원이 되도록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 연 2회 실시(6월, 10월)

진정한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성 바오로 사도

효우리 이모저모

우리 효우리들이 효광원을 통하여 사랑과 희망을 배우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동계방학 프로그램 줄넘기 대회

동계방학 프로그램 레포츠 데이

성년의 날 행사

신입반 다도프로그램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효광원 풋살대회

밥상머리교육

중등반 검정고시

삼겹살파티

날마다 쉬지 않고 조금씩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성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가경자 알베리오네

효광원 활동모습

1월

01.10 동계방학 프로그램 레포츠 3차

01.14 미용자원봉사

01.15 방학프로그램(로잉머신 체험)

01.15-16 보호자캠프

01.20 동구청방문및 후원물품 지급

01.22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MOU체결

01.28 개학식및 시상식

01.29-31 해양캠프

묵주의 기도는 단순하고 깊이가 있어 모든 기도 중에 제일 훌륭한 기도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

Photo

2월

02.04 동계방학 프로그램 시상식

02.11-12 효광원 워크숍(대천리조트)

02.14 한국사회적자본센터 후원물품 기증

02.14 효우리 생일파티

3월

03.11 특별활동 대체 풋살대회

03.12 밥상머리교육

03.13 대전 보건소 지원 코로나19 방역

03.25 세례식

이성의 권고에 귀 기울이고 늘 그 빛과 이끄심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효광원 활동모습

03.27 세례식

4월

04.02 생일자 파티

04.02 특별활동 대체 축구대회

04.11 부활성야 미사

04.14 요리교실 2기

04.16 문창동 성당지원 삼겹살파티

04.20 간담회

5월

05.12 신입반 다도 프로그램

당신을 갈망할 때 찾고 찾을 때까지 갈망하며 사랑할 때 찾아내고 찾아낼 때 사랑하게 하소서. -성 안셀모

Photo

05.18 성년의 날 행사

05.19 서울가정법원 방문

05.20 대전시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행사'

05.21 국장님 지원 치킨파티

05.26 두드림

05.29 도배반 실습사진

6월

06.03 대전가정법원 기관방문

06.08 성교육(김순희 강사)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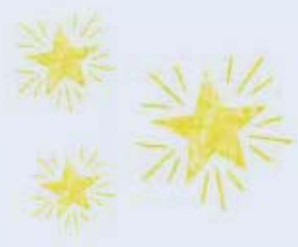
참된 기도를 얻으려고 한다면 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인내하십시오. -성 마가리오

효광원 활동모습

6월

06.11 광주가정법원 기관방문

06.29 언어순화(지도신부) 교육



착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성 바오로 사도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효광원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종사자들과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예쁜 아이들을 위해 후원해 주신분들의 정성을 이곳에 올립니다.

2020년도 상반기 후원금 내역

1월	2일	이형석
	3일	최윤영
	6일	김수영
	10일	심재광, 코밴아이러브피플
	13일	이경훈
	20일	신혜영
	21일	최규택
	22일	주혜진
	23일	비움심리상담
	28일	최윤영, 문무일
	30일	강지향
2월	3일	이형석
	5일	최윤영
	6일	김수영
	10일	이경훈, 코밴아이러브피플
	11일	대전사회복지협의회
	18일	쌀후원회
	20일	신혜영, 김 현 대전사회복지협의회
	24일	주혜진
	25일	문무일
	27일	심재광
	28일	강지향
3월	2일	이형석, 김 현
	5일	최윤영
	6일	김수영
	10일	이경훈, 코밴아이러브피플
	13일	이환희
	20일	김 현, 신혜영 대전사회복지협의회
	22일	주혜진
	25일	문무일
	30일	강지향, 물사랑나눔단
4월	1일	김 현
	2일	이형석
	6일	김수영, 최윤영
	10일	이경훈, 이환희 코밴아이러브피플
	20일	신혜영
	23일	주혜진, 대전사회복지협의회
	27일	문무일
	29일	강지향
5월	4일	이형석
	6일	김수영, 최윤영
	11일	코밴아이러브피플, 이경훈 김기덕(우산철강), 김현주 이환희
	15일	이 연
	20일	신혜영
	25일	문무일
	27일	주혜진
	29일	강지향
6월	1일	김 현, 대전사회복지협의회
	2일	이형석
	5일	최윤영
	8일	김수영
	9일	박로사
	10일	이환희, 코밴아이러브피플
	11일	이경훈
	14일	손재익
	19일	신혜영
	24일	주혜진
	25일	문무일
	30일	강지향

* 상반기 후원금 총액 : **11,890,000원**

지혜는 진리 속에만 존재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2020년도 상반기 후원물품 내역

(간식, 부식, 과일, 생필품, 운동용품, 의약품)

1월	2일	동구청
	6일	변창전, 육영석(조광상회)
	8일	성심당
	13일	㈜흥일식품
	17일	김 현
	20일	동구청
	22일	김성훈(하이촌) 가오동성당(사회복지분과) 대전시청, 계룡건설
2월	10일	산내복지만두레
	12일	최재환
	13일	산내복지만두레
	14일	육영석(조광상회), 한국사회적자본센터
	19일	아이들과미래재단
	24일	정류장약국
	25일	산내동주민센터
	26일	성심당
	29일	김성훈(하이촌), 정류장약국
3월	4일	성심당, 김 현, 우제선
	5일	산내동주민센터
	17일	육영석(조광상회)
	18일	이규홍(제주상회)
	19일	㈜흥일식품, ㈜고기랑
	20일	대전카톨릭농수산물 지원센터
	23일	동구청
	24일	대전아동복지연합회
	30일	정류장약국
	31일	김성훈(하이촌), 합덕성당선교사
4월	2일	한국아동복지협회, 산내동주민센터
	3일	동구청
	6일	한국아동복지협회
	10일	성심당
	13일	대한적십사, 가오동성당(사회복지분과)
	14일	상인축산주식회사
	16일	김성훈(하이촌), 김광혜(대산포크)
	18일	한국아동복지협회
	20일	대전 사회사목국 교정사목
	22일	성심당
	23일	합덕성당선교사, 대전사회복지협의회
	27일	한국아동복지협회
	29일	대전아동복지연합회
5월	4일	한국아동복지협회
	11일	동구청
	14일	김성훈(하이촌)
	18일	자혜원, 이 연, 한국아동복지협회
	19일	서울가정법원, 남상성(대건), 성심당
	20일	대전시청 – 정해교, 김호순, 노용재 이경하, 복진후, 정제언
	21일	김순자
	22일	김 현
	27일	대전교구사회사목국
6월	2일	성심당, 한국아동복지협회
	3일	오리온재단
	4일	대한적십자사, 오리온재단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박지훈(비비큐치킨앤비어)
	8일	축구사랑나눔재단, 제주상회(이규홍)
	9일	박로사
	10일	한국아동복지협회
	11일	전국재해구조협회 광주가정법원, 에코푸드 한국아동복지협회
	12일	한국아동복지협회 천주교 대전교구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17일	동구청
	26일	동구청
	30일	김성훈(하이촌), 대천성당

자원봉사자

축구 김정섭 **POP** 김은실, 김영미

이용 자원봉사 최원기, 신승원, 전미정, 황수일, 김경희, 경완수, 김보경, 류예서, 강계화

학습지도 최선희 **어머니와 요리교실 봉사자** 만년동 성당, 도룡동 성당, 판암동성당 자매님들

대전강사 연합회 이봉환, 정경희, 조혜진, 김기정, 최강, 강선숙, 최경진, 한왕호, 안지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020년 보호치료시설효광원 후원금 세입·세출 총괄내역

- 사 업 명 : 전체
- 자금원천 : 후원금
- 검색기간 :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06월 30일

세입과목			세 입
관	항	목	
후원금 수입	후원금 수입	지정후원금	78,289,780
		비지정후원금	10,560,000
		합계	88,849,78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3,845,244
잡수입	잡수입	기타예금 이자수입	36,636
[세입계]			92,061,660

세출과목			세 출
관	항	목	
사무비	기타 운영비	회의비	210,000
	운영비	여비	0
		수용수수료	1,081,310
		공공요금	48,480
		차량비	90,0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6,891,000
		시설장비유지비	4,119,000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20,000
		수용기관경비	1,318,200
		피복비	198,700
		의료비	862,700
		직업재활비	0
		특별급식비	300,000
		연료비	1,048,918
	사업비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8,289,290
		교육재활 사업비	304,200
		자립지원사업비	11,890,770
		도서구입비	0
	잡지출		0
[세출계]			24,403,650
차기이월금			
[총계]			

이성의 권고에 귀 기울이고 늘 그 빛과 이끄심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시(낭월차고지방향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내리면 됩니다)

- 대전역, 중앙시장 정류장 : 511번
- 대전역, 중앙시장 정류장 : 501번(마전방향), 512번
- 대전 복합터미널 정류장 : 501번(마전방향)
- 서대전역네거리 정류장 : 513번
- 정부청사(남문)터미널 정류장 : 108번

자가 운행 시

- 남대전 톨게이트에서 대전역 방면 1.6Km 전방 오른쪽(방음벽 설치) 적벽돌 건물
-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남대전 톨게이트 방면 1Km 전방 왼쪽(방음벽 설치) 적벽돌 건물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주소 34704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TEL 042.271.7053 FAX 042.271.5775
홈페이지 www.hyokwang.or.kr E-mail hkw7053@hanmail.net